

統一新羅時代の石燈

張忠植

一、前言

한국의 石燈은 삼국시대에 이미 제작되었으나 完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몇몇 部材들만 古代 寺院址에서 散見되고 있다. ① 이는 한국의 석탑이 먼저 백제땅에서 이룩된 것과 마찬가지로 석등 역시 그 始源을 백제의 부여 또는 익산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그러나 석등에 대한 起源이나 樣式的 해명은 아직 별다른 進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등은 浮屠를 포함하여 石塔과 함께 우리나라 고대 석조건축을 대표하는 중요한 造形物이면서도 아직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 다. 그것은 석등이 석탑이나 부도가 지닌 舍利莊嚴具나 塔誌와 같은 내용물을 갖지 못하였던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석등이 하나의 造形美에 있어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하여 통일신라시대의 보다 완숙하고 정비된 석등에 있어서도 아직 이렇다 할 체계적인 조사 연구는 이룩되지 못하였다. 다만 그 조사에 있어서도 자료 소가에 불과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② 다만 이들 가운데 「百濟 彌勒寺址 出土 石燈資料」는 한국 석등의 始源樣式과 함께 新羅統一期에 두었던 그 발생 연대를 백제시대에까지 소급하는 결과물을 가져왔으며, 그의 석등의 현상을 종합한 『韓國石燈目錄』과 함께 다수의

논문들이 한국 석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석등의 양식에 따르는 編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어서의 양식적 차이와 함께 그 변천과정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석등의 종교적 意義라든지 한국 석등의 起源과 形式에 따르는 양식 분류와 함께 構造的 특징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석등이 상고시대에는 光明臺^③라 불려 왔고 또 그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는 신라 圓堂型 八角浮屠와 형식을 같이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것은 八角의 일반형 또는 鼓腹型 竿柱를 지닌 석등에서 더욱 많은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연만의 소치는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 말해서 光明臺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를 지닌 석등의 구조가 이후 신라 말기부터 유행하는 祖師浮屠의 형식과 많은 일치점을 지닌다는 것 역시 이들이 造形的으로는 相通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또 現存하는 신라 석등이 機能的인 면에 있어서 實用을 위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분히 상징적 존재로서 金堂 전면 또는 佛塔 앞에 진립되었음을 지목할 수 있다. ④

따라서 이곳에서는 통일 신라시대의 대표적 석등을 선정하여 이들의 발생과 함께 양식 분류를 시도하여 그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크게 나누어 신라 일반형 석등에서 이후 특수형 석등, 일테면 鼓腹型 또는 雙獅子형식의 석등과 같은 변화 내지 발전 양식은 이들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火舍石에 등장되는 각종 浮彫像의 형식 역시 우리나라 석등 이해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다만 이들 諸形式을 어떻게 수용 처리하는가가 앞으로의 과제일 뿐이다. 이는 이후에 전개되는 고려 조선시대의 변화된 석등 양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先行되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二、宗教的 意義와 建築的 位置

光明을 상징하는 불의 존재는 一般宗教儀式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교의 식에서도 필수적으로 대두되었다. 그것은 古代의 寺院址에서 발견되는 石燈材나 또는 원래의 위치에서 現存하고 있는 石燈의 현상에서도 넉넉히 짐작된다. 이 같은 존재 樣相이 삼국시대에도 前 置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⑤ 동시에 그 배치 방안은 삼국통일 직후에도 전형적인 堂宇 正面中央에 석등 하나가 배치되는 등으로 보아도 종교적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

물론 燈의 비유는 光明이니 智慧, 또는 安樂과 같은 매우 추상적 개념을 지니면서 초기 경전에서부터 자주 등장되었다. 즉 「貧者一燈」과 같은 교훈적 가르침은 燈明을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구체화시키기에 족하였고 나아가 자기를 燈明으로 삼고, 또 法을 燈明으로 삼으라는 「自燈明」 「法燈明」이라든지 「自歸依」 「法歸依」와 같은 내용은 불교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였다. 동시에 불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無明이라는 것이다. 이 無明은 바로 光明의 반대 개념으로서 佛道에 장애되는 것이라는 뜻이므로 光明의 상징이 되는 燈明의 존재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보다 이후의 현상이긴 하였지만 燈火를 상징하는 施設物로서 가장 광광을 받았던 재료가 바로 石造物이었다고 짐작된다. 이는 材質의 견고함이나 石質의 담백함에서도 단연 인기를 끌었으므로 불교가 지향하는 永遠性이라든지 淸淨과 같은 성격에도 잘附會하였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전에는 燈明의 布施로서 얻어지는功德이나 果報를 다자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內的動因은 바로 燈具의 제작이라는 工藝의 手法를 동반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종교적功德의 개념이 燈具의 제작에 직접적 동기가 되었음은 부인 못할 사실이지만 이들이 燈具 자체로서 佛殿을 밝히게 된 데는 소위 燈臺과 같은 공예적 用具가 단연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光

明의 상징인 이 같은 燈具의 존재는 공예적 용구 자체에 머물지 않고 보다가람을 莊嚴하는 건축적 수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데 한국 석등의 특징을 주목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공예적 燈具에서부터 건축적 구조물로서의 석등이 탄생 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라 건축을 통하여 석등이 차지하는 造形的 위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는 먼저 신라의 석탑이 한국의 塔婆美術을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의 석등 역시 그 造形美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는 奇拔한 着想으로 通式에서 벗어난 造形을 보이는 것이 있음은 한국인이 石造美術에 있어서 얼마나 多才로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⑥ 고한 것 역시 그 특성을 대변해준다. 뿐만 아니라 불교 발생국인 인도나 또는 그 전승국인 중국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석등의 존재를 접할 수 없는 것은 이 또한 석탑과 마찬가지로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석등 자체가 신라석조 예술의 한 분야를 점하고 있음은 물론 堂塔의 전방 또는 중앙에서 가람의 嚴飾을 더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신라 가람배치의 그 위치를 더욱 확고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종래까지 佛殿內部の 제한된 공간을 밝히던 工藝的 燈具의 역할에서 외부 공간에도 나아가 건축적 구조물로서의 전환이 바로 신라 석등에서 찾을 수 있는 일대 변화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인도나 중국의 石燈이 數基에 불과하다 ⑦ 하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燈明 본래의 의미에 입각하여 다만 佛殿內部를 밝히는 공예적 燈具에 치중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본다면 신라 석등은 燈明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다시 이를 光明臺라고 지칭되어온 신라 이래의 명칭이 뜻하는 바와같이 일종의 구조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신라 석등의 발생이라든지 양식적 분류는 그 구조적인 특징 속에서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조적인 특징은 소위 光明臺라고 하

는 종교적 意義를 지닌 일종의 燈具 施設物에서 만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삼과 죽음의 문제라든지 死者에게 인도되어지는 光明의 존재라는 것은 종교 의식에 있어서는 當爲의 성격의 것이었다. 이로 인해서 光明臺의 형식은 이미 祖師의 墓域이 되는 石造浮屠의 형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녔다고는 추정할 수 없을 까. 다만 석조 부도가 寺域의 外廓地帶의 丘陵을 이용하여 건립된 데 비하여 석등은 가람의 중심이 되는 堂塔의 前方에 위치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語源의 으로나 또는 종교적 내용에 있어서 뿐 아니라 造形的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일치점을 지니고 있다는 데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석등, 특히 신라 시대의 석등은 석탑과 부도와 함께 한국 석조 건축의 「트리오」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석등이 지닌 신라 건축상의 위치란, 品格을 갖춘 가람배치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대두되었고 그의 격이 떨어지는 사찰에 있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燈火를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석조 건축에 있어서 석등의 존재란 그 조형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는 종교적 內實에 있어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三、新羅石燈의 起源과 樣式

(一)、石燈發生의 背景

燈具의 사용이 종교의식에 필수적으로 대두되었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거나와 여기에 屋外 建造物로서의 석등의 발생을 말하기란 단순하지가 않다. 어떠한 조형작품을 막론하고 그것은 작품이 발생하기까지에는 가장 求得하기 쉬운 隣接材料를 先行條件으로 하고 있음은 自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古代 사회에 있어서의 燈具의 사용이란 먼저 土製의 燈蓋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들이 屋外의 施設物로 전개되었을 때는 木材의 架構가 가장 손쉬운 전조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구조물로서의 燈具란 의례히 石製燈龕을 지닌, 즉 燈火를 장치할 수 있는 石燈이 그 대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고대에 속하는 木造燈具와 같은 시설물을 전혀 볼 수 없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화강석의 풍부한 量産에도 한 要因이 될 것이다.

아름든 이들 燈具가 불교적인 성격으로 사용될 때는 供養의 의미에 부합하여 「獻燈」 또는 「光明燈」이라 하고 그의 주택 혹은 墳墓 앞에 설치하는 경우 「長明燈」⑧이라 불려온 듯하다. 따라서 이와같은 燈具製作이나 獻燈의 法式은 불교 이전부터도 있었다고 넉넉히 짐작되나 이에 대한 하등의 구체적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다. 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石燈의 존재가 古代寺院址에서 수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불교 수입 이후 그것은 석등이 발생되었다고 하겠으나 보다 양식적 典型을 완성한 것은 훨씬 후대의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국 가운데 고구려나 古新羅에 속하는 石燈材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는 백제 彌勒寺址 출토의 석등재가 그 祖型을 이루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구려의 石燈은 部材조차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 역시 반도내에서 석등 발생의 上限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 불교가 세잔하기 시작한 榮留王代에서 그 末王에 이르는 7세기 후반까지도 석등의 조성이 기록되지 못하였던 고구려 불교문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되어야겠다. 즉 석등 뿐 아니라 석탑역시 그 遺構를 확인할 수 없음은 고구려의 文化傳承이 그만큼 보수적이었다고나 할까 또는 創意的의 배제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다소 다른 양식이기는 하지만 渤海時代의 完形石燈이 일찍부터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⑨ 이는 반도내의 석등과는 매우 다른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八각기 단위의 伏蓮역시 투박하게 결치면서 둔중하게 처리되었고 竿石은 엔타시스의 수법을 보인다. 上臺仰蓮역시 下臺의 양식에 준하였고 그 위의 火舎는 특이하다. 八면에 八개의 火窓을 내고 그 위에는 목조전물의 包作形式을 확실히 나타내었다. 옥개 역시 와골(瓦谷)을 내고 다시 그 위

에 寶輪形의 相輪을 놓았다. 그러므로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르는 한 형식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소 후대의 石燈資料와 함께 삼국말기 백제 下代의 都邑인 부여와 그以南의 益山地區에서 발견된 石燈材를 우리나라 석등의 始源樣式으로 삼으려는 한 이들의 發生學의 源淵은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現存樣式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의 기본형이 八각을 이루었던 사실 역시 이들 백제와 신라의 文化的 交流 사실을 실감케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초기 석등양식이 八각을 基型으로 삼고 발생되었으며 新羅一代를 통하여 流行한 八각 석등의 계보를 이곳 百濟下代로 連脈시킬 수 있으리라는 점은 特記되어야 할 것이다. ⑩ 그러므로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은 八각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 양식으로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그것은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도 八각이 시작적으로 가장 무난한 점도 있겠지만 먼저 제작상의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도 구도의 처리가 수월하였다는 이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석등은 八각의 기본 형태에서 원형의 鼓腹形이나 獅子竿柱의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하겠다.

(二)、形式分類

①、竿柱의 形式

신라 석등의 양식분류는 먼저 外形을 기본으로 하여 竿柱의 형태에서 결정적 분류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 외 上下臺 또는 火舍·屋蓋의 형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典型을 이루고 있는 八각 석등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대략 八角竿柱, 鼓腹形竿柱, 雙獅子竿柱, 또는 특수한 경우의 人物像을 등장시킨 경우 등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먼저 八각간추를 지닌 대표적 신라 석등으로는 浮石寺無量壽殿 앞 石燈, 雲門寺石燈, 法住寺石燈, 陝川伯巖里石燈, 佛國寺石燈, 寶林寺石燈, 實相寺百丈庵石燈, 長興 天冠寺石燈 등 가장 풍부하다. 실제로 오늘

날 部材가 결실된 석등까지 합친다면 이들 八角竿柱를 지닌 석등은 수 없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八각의 측면에 아무런 장식도 없는 素面으로 上下臺石에 고정된 채 석등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⑪ 그의 아무런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竿柱가 석등의 양식 분류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석등의 다른 부분에서는 별다른 양식적 변화가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竿石의 長短에 대하여는 석등의 크기에 비례하겠지만 높이가 짧은 경우에는 下臺蓮華石 또는 基臺石의 높이가 비례적으로 조정되었음을 주목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구조적 形態美에 있어서는 浮石寺石燈과 같이 基臺石이 낮고 竿石이 높으면서도 안정되고 시원한 일면을 보여 주는 예도 있다. (圖一 참조) 이렇게 八角竿石의 크기는 석등의 비례나 형태 미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竿柱가 鼓腹型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陝川清涼寺石燈, 襄陽禪院石燈, 華嚴寺覺皇殿 앞 石燈, 實相寺石燈, 任實龍巖里石燈, 潭陽開仙寺址石燈 등을 주목할 수 있겠다. 대체로 이들은 竿石의 上下와 중간 부분이 넓어 일종의 장고처럼 만들어졌으며 점차 각부에 복잡한 장식이 가해지고 있다. 이 장식은 시대가 내려가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화려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예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雙獅子石燈 형식의 竿石을 지닌 신라 석등으로는 法住寺雙獅子石燈, 中興寺雙獅子石燈(一名 中興山城石燈), 靈巖寺址雙獅子石燈을 그 대표로 들 수 있겠다. 이들은 기발한 착상을 가져온 것으로서 일종의 조각상을 석등의 건축 구조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라 하겠다. 물론 사자의 조각상에는 각기 양식적 차이를 지니고 있으나 그 착상에 있어서는 쌍사자를 등장시키는 동일한 意匠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즉 佛前燈火供養의 內實을 불교적 吉祥獸로 알려진 사자와 연관시켜 이러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함께 특수한 형식으로 人物像이 등장되는 것으로는 求禮 華嚴寺

四獅子石塔 앞의 석등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개의石柱가 竿柱를 대신하였고 그石柱 내부에 護腕의 坐像이 배치된 형식이다. 그러므로 人物形 竿柱라는 말은 不適하지만 이와 같은 僧像의 人物이 석등의 下臺基壇部를 형성하였다고 하겠다. 즉 人物像의 上部에 일종의 屋蓋形式의 지붕들을 놓고 그 위에 火舍石을 받치는 蓮華上臺石을 배치하였으며 이들의 형식은 일반 석등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석등은 四獅子石塔의 前方에 위치한 점, 또는 석탑을 향하여 배치된 人物像의 형태 등에서 석탑에 대한 燈火供養의 의미를 如實히 나타낸다 하겠다.

②, 蓮華臺石의 形式

연화석의 형식에서는 먼저 일반형 八角 竿柱와 鼓腹型 竿柱를 지닌 석등 형식에서 兩者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다. 물론 이와 같은 형식이一律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八角 竿柱型 석등에서는 單瓣 蓮華紋이 많이 적용된 데 비하여 鼓腹型에서는 複瓣蓮華紋이 주종을 이룬다 하겠다. ⑫ 그리고 鼓腹型石柱를 지닌 석등형식에서는 한결같이 下臺石에 돌출된 귀꽃을 지니는 것이 주목된다. 이 같은 형식은 이미 시대적 變相으로서도 주목되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鼓腹型 竿柱의 특색으로 나타난 짧고 넓게 퍼진 竿柱와의 조화에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下臺 基臺面의 眼象은 이들 몇몇 형식에 관계 없이 다양하게 등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 형식 역시 四각이 있는가 하면 八角으로 등장된 경우도 있어 이 또한 일정하지는 않다. 다만 하나의 통일성을 가할 수 있는 것은 蓮華臺石이 大小를 막론하고 거의 八葉을 이루었던 점이다.

그리고 쌍사자 석등의 경우 법주사와 영암사 석등의 사자는 下臺伏蓮 위에 두 마리의 사자가 가슴을 맞대고 서 있는데 비하여 유독 中興寺石燈은 下臺伏蓮 위에 다시 낮은 仰蓮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쌍사자를 배치한 것이 다르다. 또한 이들 연화대의 花紋形式은 上下臺를 막론하고 각기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하여는 양식 고찰에서 다시 언급되어야 할 것

이다.

上臺蓮華石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석등이 下臺石의 형식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⑬ 물론 이들이 그 하나는 伏蓮의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仰蓮이란 점에서 당연한 차이가 인정되어야겠으나 이들 중합적으로 볼 때는 上下臺石이 각기 동일한 양식체보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③, 屋蓋 및 火舍石

먼저 火舍石의 경우는 火窓의 형식에 의하여 大別될 수 있겠다. 이들은 모두 八角에 八面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火窓은 一面씩 진너 四面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와는 달리 八面 모두 火窓을 내고 있는 형식으로 大別된다. 前者의 경우는 八角 竿柱 또는 쌍사자 석등 형식에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後者의 경우는 주로 鼓腹型 석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이 效用面에 있어서 光窓의 이용도는 후자가 훨씬 낮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現存하는 석등은 거의 대부분 四面의 火窓을 지니고 나머지 火舍壁으로 처리되었다. 혹자는 석등의 기능을 말하면서 승려들의 야간 활동을 위한 것으로 풀이 ⑭ 하였지만 필자의 견해는 다소 다르다. 물론 석등 자체가 승려들의 야간 생활과 無關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 같은 기능이 강조된 것이라면 火窓의 문제는 분명 四面 보다는 八면의 석등이 더욱 성행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등은 四面의 火窓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작아진 예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⑮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석등 자체가 야간 활동을 위한 실용적인 면 보다는 燈火供養의 상징적 의미, 또는 聖所에 대한 위치 강조의 개념이 더욱 짙었다고 하겠다.

아름은 석등의 이 같은 기능이 전적으로 火舍石에서 강조되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와 함께 火舍石 四面을 남긴 火舍壁에는 四天王 또는 보살상의 浮彫像을 등장시키는 형식이 있어 흥미롭다. 조각상의 크기가 작을 수 밖에 없지만 이들의 造形은 석등 양식은 물론 석탑에 등장되는 淨

彫像과도 앞으로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⑩

다음으로 옥개석의 경우는 그 상층부를 나타내는 相輪部가 결실된 경우가 보통이지만 개층에는 상층부의 寶蓋와 함께 寶珠까지도 남아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들 相輪部의 형식은 일반형 석탑인 八角竿柱를 지닌 석탑이나 또는 鼓腹型 석탑을 막론하고 모두 만들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寶蓋가 생략되면서 단순히 옥개上部에 寶輪을 模刻함과 동시에 寶珠를 놓는 형식^⑩도 있겠지만 착실하게 상층부를 조성한 두 가지 형식^⑪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먼저 寶蓋 등을 생략한 간략화된 석등의 형식에서는 八角竿柱를 지닌 일반형 석등에 많고 그 외 相輪部를 完存하는 형식에는 鼓腹型에서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竿柱를 지닌 석등이 그 폭에 비하여 高峻해 진 점도 한 이유가 된다. 鼓腹型의 경우 그 폭에 비하여 옥개가 낮은 것도 相輪造成의 한 구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相輪의 형식에 관한 것은 석등의 양식적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석등의 형식분류를 간단히 살펴본 뒤 이들의 양식적 고찰은 석등의 형식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간략히 다룰 수 있을 것이다.

(三) 樣式的 考察

신라 석등의 양식적 고찰은 앞의 형식 분류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竿柱의 형식에서 大別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신라 一般型 양식에서 이후 특수형 양식으로의 전환이나 이들의 연관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火舍石의 형태라든지 옥개 또는 相輪 등의 형식에서도 그 양식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外形의 특징에 의한 것이라면 竿柱의 형태에 따라 분류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八角竿柱를 지닌 전형적인 신라 석등을 먼저 一般型石燈이라 하고 다시 장고형 竿柱를 지닌 석등을 鼓腹型, 그리고 쌍사자형식 등을 特殊型에 배속시켜 고찰하기로 하겠다.

다만 종래까지는 석등양식의 분류가 典型樣式 鼓腹型樣式, 異型樣式으로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전형양식 대신 이를 일반형이라 하였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세양식이 각기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중 어느 하나를 전형양식에 배속시키기에는 주저함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가장 보편적으로 풍부하게 제작된 형식을 전형양식이라 한 듯하나 이들은 차라리 보편적이라 표현 자체가 더욱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이라 함의 미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봐 그렇게 부르기로 하겠다.

아 물론 이같은 분류법에 의하여 이들의 형식을 간략하게 고찰하기로 하겠다.

① 一般型石燈

통일신라시대 일반형 석등의 가장 대표적 작품의 고찰은 역시 榮州浮石寺石燈(국보 제 一七〇호)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석사가 지닌 寺格과 함께 석등이 지니고 있는 形態美에 있어서도 단연 신라 석등을 대변할 만한 매우 격조 높은 작품으로 주목되기 때문이다.

부석사의 창건은 신라 文武王 一六(六六)으로 알려져 있으나 석등의 제작 연대를 여기까지 올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그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석등의 現高는 二, 九七m에 地臺石만을 四각으로 하여 四면에 각 二구의 眼象을 배치하였으며 그 이상은 모두 八각을 유지하였다. 下臺蓮華石에는 돌출된 귀꽃을 장식한 것이 이미 후대 고려시대 연화대석에 나타나는 장식적 연화문 양식의 길을 열고 있다. 八각의 竿石은 細長한 편이고 그 위에 놓인 仰蓮의 上臺石은 下臺와는 다른 手法를 보인다. 차라리 下臺 자체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後述할 寶林寺 석등 하대석과도 相通하는 바가 있으나 이미 細部手法에 있어서는 世代的 차이를 면치 못한다.

火舍石은 四면에 火窓을 나타내었고 그 주위에는 小孔이 있어 火窓을 고정시켰던 것으로 짐작된다. 火舍壁을 유지하는 나머지 四면에는 연화대 위에 바로 선 四구의 보살상을 浮彫로 나타내었다. 옥개석은 轉角에 反轉이 뚜렷하며 頂上에는 연화문과 함께 寶珠를 놓았다.

이 석등의 전체적 수법에는 단조로우면서도 下臺의 귀꽃에서 보이는 바와같은 섬세한 장식적 수법 역시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사찰의 창건과 同代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同寺의 圓融國師碑에 보이는 「: 像殿內唯造阿彌陀佛像、無補處、亦不立影塔、云云」⁽¹⁹⁾ 등에 준한다면 現存하는 석탑 뿐 아니라 석등 역시 당시의 작으로는 전혀 볼 수 없다. 또한 義湘의 十大德中の 一人인 悟眞이 일찌기 下柯山 鶴嶺寺에서 매일밤 팔을 뻗치어 浮石寺의 燈을 켜다⁽²⁰⁾고 하지만 단순히 이 기록만을 가지고 부석사 석등에 국한시키기에는 매우 애매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으로서 부석사의 燈具施設을 암시하는 견해⁽²¹⁾도 있으나 이것은 그 내용으로 봐 이곳에서 문제삼는 屋外燈具로는 볼 수 없겠다. 따라서 이 석등의 제작 연대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결국 그 양식에 준하는 八세기 중엽 이후에 놓아야 할 것이다.

부석사 석등과 함께 동일 형식으로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작품으로는 역시 法住寺 四天王石燈(보물 제 一五五호)을 주목할 수 있겠다. 이 석등은 총고 三、九m로서 부석사 석등에 비하여 경쾌한 맛이 들하나 그 전체적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부석사 석등은 方形地臺石 위에 八각을 기본으로 하는 下臺 연화석을 배치하였으나 범주사 석등은 역시 方形地臺石 위에 다시 각면에 眼象을 새긴 八각의 下臺石을 놓고 그 위에 여덟 잎의 큼직한 伏蓮臺를 배치한 것이 다르다(圖 二 참조).

이 석등은 上下臺石 연화문 속에 모두 寶相華紋의 장식을 넣어 같은 手法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석사 석등에 비하여 상하대석은 모두 둔중하여졌다. 火舍石에는 四면에 火窓을 내고 나머지 四면에는 四天王을 배치하여 장식적 수법을 더하고 있다. (圖 三 참조). 또한 옥개의 형식 역시 앞의 부석사 석등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이

석등의 제작 연대는 法住寺 重創에 준하는 愍公왕 二년(七六六)의 조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²⁾ 뿐만 아니라 佛國寺 大雄殿 앞 석등(도면 一 참조) 양식과 같은 비교적 장식성이 배제된 석등의 연대 설정이 불국사 중창에 준하는 八세기 중엽으로 보는 것이라면 범주사 석등의 연화대 석 또는 화사석의 장식적 수법 등은 그 제작을 더욱 내려다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이들 일반형 석등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세부양식에 있어서 더욱 흥미를 끌게 하는 석등으로는 長興 寶林寺石燈(국보 제 四四四호)을 주목할 수 있다.

먼저 보림사는 신라 下代 현안왕 四년(八六〇) 普照禪師에 의하여 개창된 禪門九山中의 하나로서 이 석등의 제작 역시 同代의 제작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각부의 양식은 기단에서 相輪까지 完形을 보이고 있으며 方形의 地臺石을 제외하고는 모두 八각을 기본으로 하였다(圖 四 참조). 비교적 높은 편인 下臺石에는 各面 一구씩 八구의 眼象을 나타내었고 下臺 연화석은 귀꽃이 돌출된 伏蓮石을 놓았다. 八각의 竿柱가 받치고 있는 上臺 연화석은 重瓣의 單葉仰蓮으로 처리되었으나 화관 속에는 花紋을 복잡하게 나타내어 지금까지 본 여타 석등보다도 더욱 장식성이 강조되고 있다. 화사석에는 四개의 화창을 내었으며 火舍壁은 素紋이다. 옥개는 경쾌한 反轉을 보이며 轉角에는 각기 귀꽃을 장식하였으며 相輪은 둥근 마디를 놓았고 그 위에는 역시 옥개와 同形의 寶蓋를 설치한 것이 인상적이다. 보개 위에는 寶珠를 나타내어 석등의 상륜부를 마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석등은 九세기 중엽 이후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석등이라 하겠다.

또 이 보림사 석등과 유사한 특징을 지적하면서 同郡 天冠寺石燈⁽²³⁾을 말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미 竿柱뿐 아니라 옥개의 형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즉 천관사 석등 역시 신라 전승기의 석등처럼 경쾌한 맛이 이미 없고 투박하고 육중해지는 高麗的 요소가 보이므로 支提誌의 기록에 준하는 哀莊王代의 석등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형 석등 가운데 하나 더 주목되어야 할 것은 實相寺百丈庵石燈(보물 제40호)이다. 이는 총고二、五m의 아담한 석등이지만 다른 석등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장식성이 주목된다. (圖 五 참조) 즉 八각地臺石 위에는 一六면의 특이한 眼象이 낮게 둘러져있고 그 위에 큼직한 八瓣의 單葉伏蓮이 그 내부에 花紋을 지니고서 마련되었다. 八각의 竿柱는 通式이고 그 위에 놓인 上臺仰蓮 역시 下臺石과 조화를 이루면서 큼직하게 조성되었으나 그 상부에는 난간을 화려하게 배치하여 火舍石의 장식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四개의 火窓을 더욱 작게 나타낸 火舍石의 火舍壁은 素紋으로 처리되었다. 우개는 심한 反轉을 보이며 寶珠 역시 中節形의 마디를 겹쳐놓았고 그 위에 仰蓮을 겹치는 형식으로 처리한 蓮形의 寶珠를 형성하였다.

이 석등에서 보이는 특징적 요소란 신라 일반형 석등이면서도 이미 下臺石에 나타난 특이한 眼象과 함께 上臺연화석 上部를 장식한 화려한 난간의 형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형식은 지금까지 살핀 어떠한 석등에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특이한 수법이면서 신라 石燈系列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秀作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와 이웃하여 있는 화려한 석탑과 더불어 이들은 장식성이 더욱 길어진 신라 下代의 作이면 서 이후 고려했던 양식 변화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②. 鼓腹型石燈

鼓腹型 석등양식은 신라 일반형양식에서 일련의 변화를 가미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竿柱가 소위 장고형의 鼓腹型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종래의 전형적인 八각竿柱를 지닌 석등에 비하여 더욱 안정감을 찾았다고 하겠으나 그 대신 석등의 외형은 더욱 둔중해지고 또는 거대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더욱 장식적이 가해지고 있다.

먼저 이와 같은 석등 양식에 대하여 佛敎宇宙觀과 결부하여 고찰하려는 견해가 있어 신중을 요하고 있다. 즉 지구와 천상간에는 三十三天이 있

으며 그 위에 須彌山이 있어 석등의 火舍는 수미산을 상징한다는 수미산과 地上과의 사이 공간이 竿石이 된다²⁴고 하였으나 이는 어디에 근거한 說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를 말한다면 그 첫째 지구와 천상간에 三十三天이 있고 그 위에 수미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미산을 중심으로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하늘이 四王天이고 그 위에 忉利天 즉 三十三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이는 수미산의 꼭대기가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곳까지를 地居天이라 하고 그 이상부터는 空居天으로 전개된다는 것이 교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그리고 둘째, 須彌山이 불교의 우주관을 설명하는 말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로 인하여 鼓腹型 석등의 竿柱 중간에 배치된 輪部를 佛經에 나오는 日月의 運行을 묘사한 것²⁵으로 보려는 견해 역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佛經에서는 수미산의 주위에 日月의 운행을 말하고 있음이 사실이나 이를 석등의 竿石에 배속시킬 근거는 약하며 또 主張대로 한다면 三十三天의 위에 있는 火舍가 수미산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불교의 교리를 친착한 나머지 단순히 鼓腹型 석등에 배속시킨 결과라고 하겠다. 동시에 그 교리적 전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곳에서는 석등의 양식적 고찰에 그 한계를 두고자 한다.

鼓腹型 석등의 가장 앞선 예로서는 먼저 陝川의 淸涼寺 석등(보물 제二五三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석등의 전체적 구조는 八각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竿柱에 소위 鼓腹型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석등의 外形은 복잡한 장식에 화려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봐 일반형 석등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下臺蓮華石의 귀꽃이라든지 火舍石 四면에 나타난 四天王 浮彫像의 형식 등은 앞서 살핀 浮石寺 석등과도 비교될 수 있는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 사찰은 신라말 崔致遠이 즐겨 찾던 장소였던 점²⁶을 감안하더라도 석등 제작의 연대를 짐작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그 세부 수법에 있어서는 浮石寺 석등 양식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서 八세기 후반에서 九세기에 놓아도 좋을 석등이라 하겠다. (圖 六참조).

다음으로 주목되는 鼓腹型 석등으로는 역시 華嚴寺 覺皇殿 앞 석등(국보 제一二二호)을 들어야겠다. 이 석등은 상대석 이상이 더욱 거대해지면 서 옥개석에 돌출된 귀꽃을 노출시키고 있다. (圖 七참조) 따라서 화사석 이상에서부터 더욱 過積된 구조는 안정감을 외면한 감이 있으나 낮아진 鼓腹型 竿柱라든지 기단부에서 조화를 찾으려 한 흔적이 보인다. 화사석의 외부 벽면에는 장식을 가하지 않은 素紋이지만 옥개석의 귀꽃 또는 相輪部에 등장되는 화려한 장식적 수법 등은 이 석등이 淸涼寺 석등에 뒤지는 양식으로 봐 좋을 것이다. 즉 鼓腹型의 竿柱만 하더라도 淸涼寺 석등 형식을 추종하는 것이지만 장식적 의미는 더욱 생략되고 있다. 따라서 그 양식 계열을 다음에 언급할 實相寺 石燈과도 다른 청량사 석등 형식에 넣어야 할 것이다.

같은 鼓腹型 석등이면서 그 형식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석등으로는 먼저 實相寺 석등(보물 제三五五호)을 들어야겠다. 이는 八면의 火舍石에 모두 火窓을 낸 접이라든지 또는 鼓腹型 竿柱의 上中下 三부분에 원형의 돌출부의 띠를 마련하고 間地에 華紋을 조각한 점이 주목된다. 상하대의 연화문은 단조로운 편이나 옥개석의 귀꽃은 三山形으로 배치하였고 그 내부에는 渦紋을 나타낸 것이 화엄사 석등과 동일하다. (圖 八참조) 다만 反轉이 매우 약해진 옥개석의 落水面에는 合角마다 一瓣씩의 伏蓮을 나타낸 것이 다르다.

그리고 이와같은 양식 계열에 넣어야 할 고찰되어야 할 석등으로는 全南潭陽의 開仙寺址 석등(보물 제一一一호)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역시 높이 가 짧은 鼓腹型에 거대해진 火舍石은 八면체체에 火窓을 내었다. (圖 九참조) 그 間柱 양쪽에는 長文의 造燈記가 楷書로陰刻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八九一년(眞聖女王 四)의 作임을 알게한다. 따라서 이 석등의 조성연대는 양식적 고찰에 표준이 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즉 이는 全北 任實의 龍巖里 석등(보물 제二六七호), 강원도 襄陽의 禪林院 석

등(보물 제四四五호) 등과 비교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동시에 이와같은 鼓腹型 석등의 기본 구조가 이후에 전개되는 고려시대의 祖師浮屠에 미친 양식적 전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特殊型石燈

특수형 석등이란 앞서 말한바와 같이 竿柱의 형식에 雙獅子 또는 人物 등장시킨 예라고 하겠다.

먼저 쌍사자 석등의 가장 앞선 예로는 法住寺 雙獅子石燈(국보 제五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석등 역시 기본 구조는 八각이지만 竿柱대신 두 마리의 사자가 하대석 위에서 상대석을 받치고 있는 형식이다. 지대석 위의 伏蓮石 내부에는 다시 花紋이 가해져 있고 상대석은 二중의 仰蓮을 배치하였다. 八각의 火舍石은 四개의 火窓을 배치하였고 주위에 小孔이 있을 뿐 아무런 장식이 없다. 옥개 역시 앞서 살핀 일반형 석등과 동일 형식으로 처리되어 귀꽃 등의 장식은 전혀 없다. (圖 一〇참조)

이 석등은 사자의 앞가슴에 주어진 강건한 힘의 표현이라든지 古式을 반영하고 있는 연화문의 형식 등이 至近한 거리에 있는 四天王石燈의 세부 양식에 준하여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화문의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蓮瓣内部에 나타난 장식적 문양 등은 동일한 意匠으로 파악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석등 역시 四天王석등에 준하는 신라 八세기 중엽 이후의 작으로 봐 무난할 것이다.

다음으로 범주사 쌍사자 석등과 쌍벽을 이루는 기발한 착상하에서 이루어진 석등으로는 현재 구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는 中興寺 雙獅子 석등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석등은 본래 全南 光陽郡 玉龍面 雲坪里의 소위 中興山城內의 古寺址에 있던 것을 옮겨왔으므로 통칭 中興山城 雙獅子 석등(국보 제一〇三호)이라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석등은 山城의 석등이 아니라 본래 이곳에 實在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中興寺의 석등으

형과 같은 변화양식은 九세기 이후의 祖師浮屠 형식과 연관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길은 없지만 신라석등의 형식과 이들 祖師浮屠를 外形面으로 비교한다면 鼓腹型의 형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인다고 하겠다. 물론 祖師浮屠에는 八각竿柱形式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장식성이 더욱 농후해진 浮屠는 古북형석등양식에 더욱 접근해 있다고 하겠다. 구태어 이같은 형식을 지목한다면 서울 景福宮에 移置된 鳳林寺眞鏡大師浮屠(보물 제 三六二호)를 들 수 있겠다. 이는 八각을 기본으로 하는 석등과 전혀 동일형식이며 다만 일반 浮屠에 비하여 下臺石에 略化現象이 보이기는 하나 석등의 火舍石이 부도의 塔身部로 변화된 양식으로 볼 수 있겠다(圖 一五참조) 또는 寶林寺東浮屠(보물 제 一五五호)와 같은 형식은 석등의 八각竿柱가 中臺石의 역할을 하지만 옥개상부의 寶蓋까지도 동일형식으로 잘 남아있다(圖 一六참조).

아름은 이같은 형식적 對比는 앞으로 다른 기회에 더욱 비교 고찰되어야겠지만 이들 祖師浮屠의 기본 構圖가 신라 八각석등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피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주로 호남지방에서 전래되는 석등, 일테면 화엄사, 실상사, 개천사 석등에서 나타나는 屋蓋 중앙의 相輪部가 浮屠의 형식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보다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相輪部를 장식함에 있어서도 일반형 석등 보다는 古북형석등이 더욱 祖師浮屠의 형식에 가깝다고 하겠다.

四、結 語

신라 석등이 차지하는 건축적 意義는 매우 막중하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먼저 신라 석등의 發生 意義를까 건축적 위치를 논함에 있어 佛殿을 장식하던 工藝의 燈具에서 차츰 屋外의 건축적 시설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重視하였다. 그것은 신라 석조건축에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형

식을 나타내고 있는 석등의 이해에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佛殿 장엄구로서의 종교적 의의를 수반하고 있는 공예적 燈具가 기본이 되어 독특한 신라석등 형식의 소위 光明臺를 구축하였다는 말이 되겠다.

이와 함께 석등의 機能的인 면에 있어서는 實用的이기 보다는 聖所에 대한 位置 개념이 더욱 길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光明에 대한 상징적 성격이 신라 석등의 造形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의의를 지닌 燈明 자체에 대한 功德의 개념은 佛前 燈火供養의 중심을 이루하여 굽기야는 獅子供養과 같은 기발한 구도적 착상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같은 구도적 전개는 조각과 건축적 수법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지만 일반형 신라석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쌍사자형식의 특수양식을 남기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鼓腹型과 같은 변화된 양식으로 전개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일반형 석등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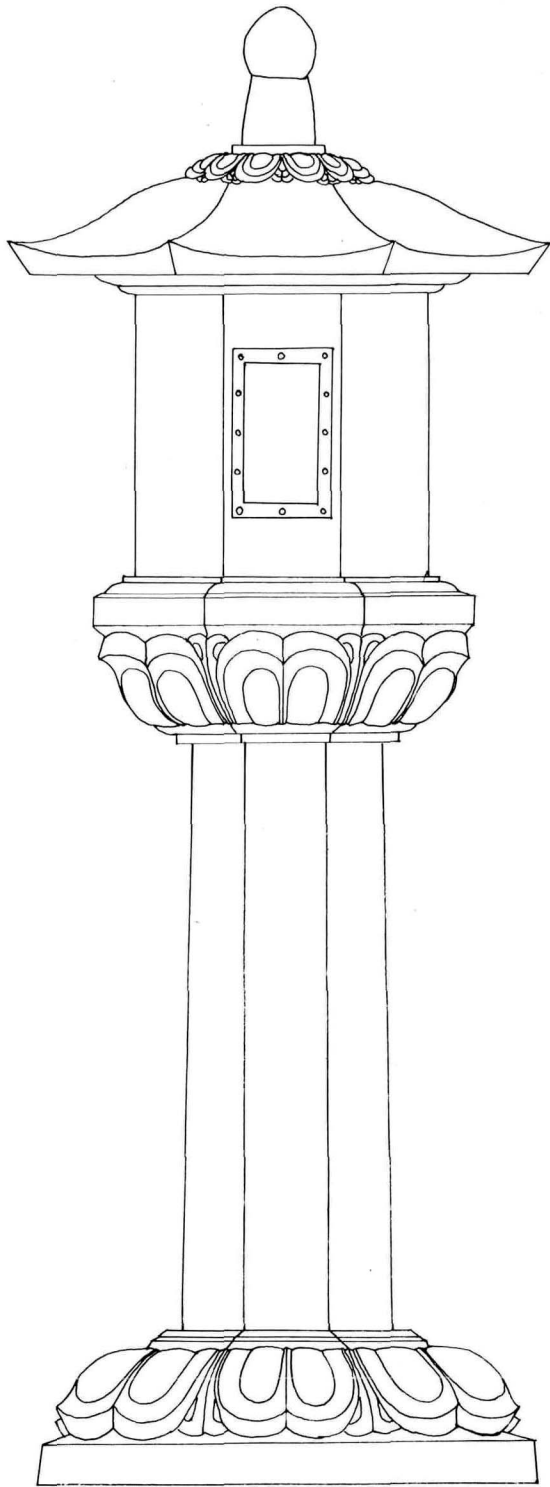
또한 火舍石의 형식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석등은 승려들의 야간 활동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燈火供養을 위한 일종의 상징성이 더욱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鼓腹型 석등 자체를 불교 宇宙觀에 입각한 須彌山의 형식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석등 자체에 대한 자기모순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더욱 검토되어야겠다.

이상 양식적 전개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火舍石의 火窓은 八角四面과 八角八面으로 나타나는 두 형식이지만 火窓이 四개의 경우는 주로 八각竿柱의 일반형 석등, 그리고 八개의 경우는 주로 鼓腹型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屋蓋上部 相輪部에 寶蓋를 지닌 형식은 주로 호남 지역의 석등에서 볼 수 있었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별로 볼 수 없었다.

또한 신라의 석등은 八세기 경에 들어와서 더욱 활발하게 조성되었다고 하겠다. 그것은 반도내에서 석등의 발생이 삼국시대 백제에서 그 祖型樣式을 찾을 수 있으나 그 典型樣式의 완성과 함께 보다 확고한 建築

美를 이룩한 것은 통일신라 時代에 놓을 수 있겠다. 이것은 통일기에 들어선 신라의 시대적 상황이 三國의 文物을 보다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을 기한 결과라고 하겠지만 八세기 신라 문화 예술의 全盛이 바로 신라 석등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라 석등의 발생이 일반형 석등에서 출발하여 고부형의 석등을 낳고 있으나 그 사이 특수형식으로 쌍사자 석등이 등장되었음은 이들의 형태 추정에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八각을 기본으로 하는 신라 석 등에 장식적 문양이 더욱 다양하게 출현되는 것은 신라말 고려적 요소로까지 확대하여 고찰할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형식전개는 石造浮屠와 연관하여 앞으로 더욱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光明臺로서의 石燈과 祖師墓塔으로서의 浮屠는 그 형식적 對比와 함께 앞으로 더욱 조사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도면 1) 佛國寺 大雄殿前 石燈, 1983.4 實測

[註]

- ① 이 시대의 石燈材는 주로 백제 시대에 국한되고 있으며 益山の 彌勒寺址에서 수습된 총 九點과 扶餘의 佳塔里出土의 石燈 臺石 등을 주목할 수 있다.
- ② 지금까지 석등에 관한 조사 내용으로는 關野貞 「新羅時代の石燈」(『朝鮮の建築と藝術』一九〇六年)、藤島玄治郎 「慶州を中心とする新羅時代石燈論」(『建築雜誌』第五八二號、一九三四年)、黃壽永 「益山彌勒寺址의 百濟石燈」(『考古美術』第二九號、一九六二年)、秦弘燮 「韓國의 石燈」(『文化財』第二號、一九六二年)、鄭永鎬 「光州有銘石燈」(『考古美術』第三七號、一九六三年)、申榮勳 「覺皇殿前石燈工事概要」(『考古美術』第六二號、一九六五年)、申榮勳 「華嚴寺九層庵塔燈復元工事」(『考古美術』第六二號、一九六五年)、金東賢 「原州法泉寺址出土의 石燈火舍片」(『考古美術』第五六・五七號)、黃壽永 「百濟彌勒寺址出土石燈資料」(『歷史學報』第三〇輯、一九六六)、鄭永鎬 「鷲棲寺의 塔像과 石燈」(『考古美術』第六九號、一九六八年)、鄭永鎬編 「韓國石燈目錄」(『考古美術資料』第一三輯、一九六七年)、鄭明鎬 「韓國石燈의 樣式變遷」(『동국대학원』一九七〇、九)、鄭明鎬 「百濟時代の 石燈」(『馬韓百濟文化』제一・二號)、鄭明鎬 「長興天冠寺新羅石燈」(『考古美術』제一三八、一三九호、一九七八)、鄭明鎬 「韓國石燈小考」(『東國思想』제一五집、一九八二)、
- ③ 『俗離山法住寺事蹟』 또는 『佛國寺古今創記』 참조, 이 기록들이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전통적 명칭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④ 선왕 자체가 지닌 종교적 의의와 함께 고대 석등의 火舍石에서는 火窓을 고정시켰던 못을 볼 수 있으며 또 下代에 가서는 火窓을 模刻하는 경우도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黃壽永 「百濟 彌勒寺址出土 石燈資料」 『歷史學報』第三〇輯(역사학회 一九六六、四) p.4.
- ⑥ 秦弘燮 「韓國의 石燈」 p.29 참조 『古文化』第二號、一九六二年.
- ⑦ 鄭明鎬 「百濟時代の 石燈」 『馬韓百濟文化』第一、二號.
- ⑧ 秦弘燮 前掲 「韓國의 石燈」 p.29 참조.
- ⑨ 李基白, 李基東 「韓國史講座」 古代篇, 一潮閣, 一九八二, 八 참조.
- ⑩ 黃壽永 「百濟 彌勒寺址出土 石燈資料」 『歷史學報』제三〇집, 역사학회, 一九六六, 四.

⑪ 羅州西門石燈의 경우 竿柱 八면에 細長한 兩隅柱를 조각한 특수한 예도 있지만 이는 銘文(大安九年、一〇九三年)에 의하여 이미 시대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한다.

⑫ 다만 浮石寺 또는 寶林寺 石燈의 경우 下台蓮華石은 複蓮이며 또 귀꽃을 돌출시키고 있어 일반 鼓腹型 석등의 臺石과 同一樣式이란 점은 앞으로 더욱 주목되어야겠다.

⑬ 이같은 현상은 석등 뿐만 아니라 浮屠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⑭ 鄭明鎬 「百濟時代の 石燈」 『馬韓百濟文化』第一、二號 p.123 및 「韓國石燈小考」 『東國思想』 p.62 참조.

⑮ 석등의 火窓이 火舍面에 비하여 더욱 축소된 경우는 海印寺石燈을 비롯하여 華嚴寺九層庵石燈, 또는 梵魚寺石燈 등에서 주목된다. 특히 범어사 석등의 경우는 火舍石의 높이에 비하여 火窓의 크기는 거의 1/2로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화엄사 獅子塔前의 석등은 상징성이 더욱 농후하다.

⑯ 石塔浮彫像에 관한 논문으로는 文明大 「韓石塔浮彫像의 研究」 『佛敎美術』제四、五호와 함께 필자의 「統一新羅石塔浮彫像의 研究」 『考古美術』제一五四、一五五호(한국미술사학회) 등이 있다.

⑰ 이의 대표적 석등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사천왕석등, 또는 中興寺石燈 그리고 實相寺百丈庵石燈 등을 들 수 있겠다.

⑱ 이 형식에는 寶林寺石燈, 화엄사 覺皇殿앞 석등, 실상사석등 등을 주목할 수 있다.

⑲ 朝鮮金石總覽上 p.271.

⑳ 三國遺事卷四 義湘傳敎條 「眞嘗處下柯山鶴嶺寺每夜伸臂點浮石室燈」

㉑ 鄭明鎬 「浮石寺石燈에 대하여」 『佛敎美術』제三집 一九七七、九, 동국대박물관.

㉒ 韓國美術全集 七, 石造篇 참조.

㉓ 정명호 「長興天冠寺新羅石燈」 『考古美術』(一三八、一二九호、一九七八、九, p.112 참조.)

㉔ 鄭明鎬 「韓國의 石燈小考」 『東國思想』제一五집 p.68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一九八二.

㉕ 上同

㉖ 三國史記 卷第四六 列傳六, 崔致遠.



圖1) 浮石寺 無量壽殿앞 石燈



圖2) 法住寺 四天王 石燈



圖3) 法住寺 四天王 石燈 上部



圖4) 宝林寺 石燈



圖5) 實相寺 百丈庵 石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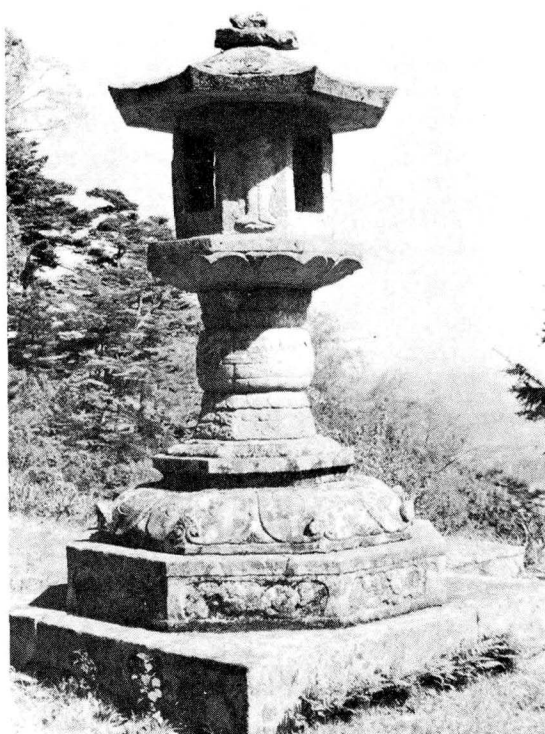


圖6) 清涼寺 石燈



圖7) 華嚴寺 覺皇殿 앞 石燈



圖8) 實相寺 石燈



圖9) 開仙寺址 石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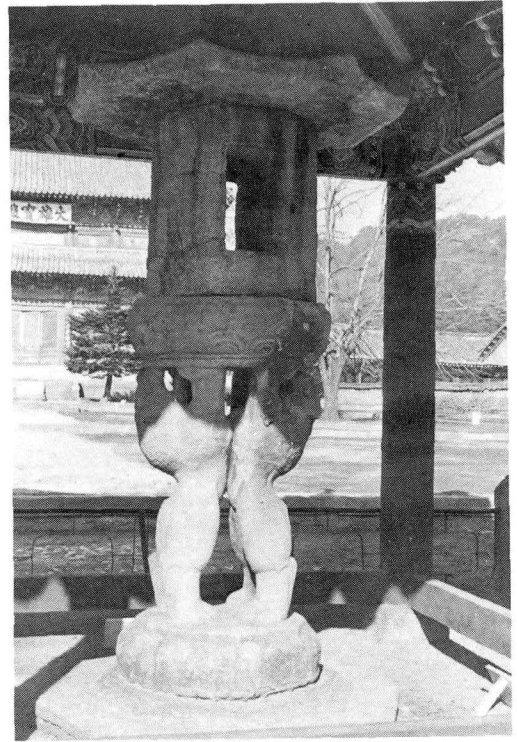


圖10) 法住寺 雙獅子 石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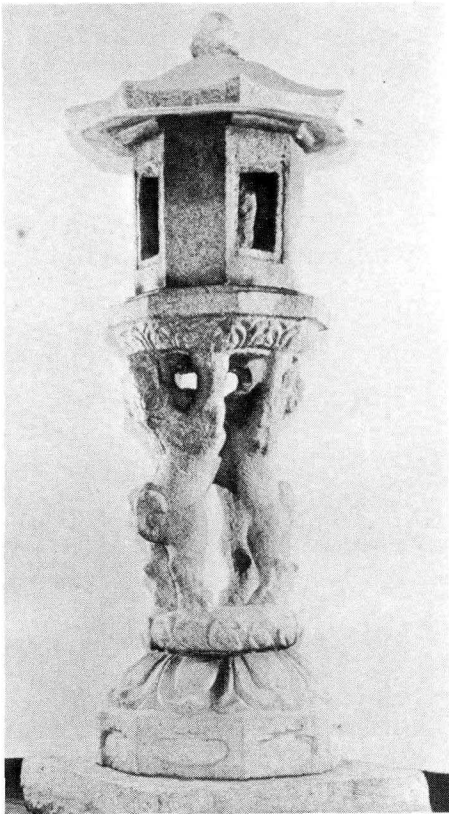


圖11) 中興山城 雙獅子 石燈



圖12) 靈岩寺址 雙獅子 石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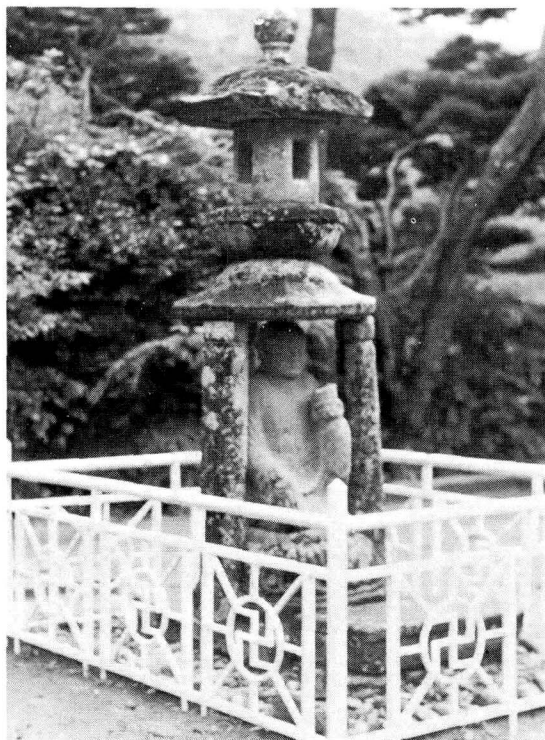


圖13) 華嚴寺 四獅子 石塔龕 石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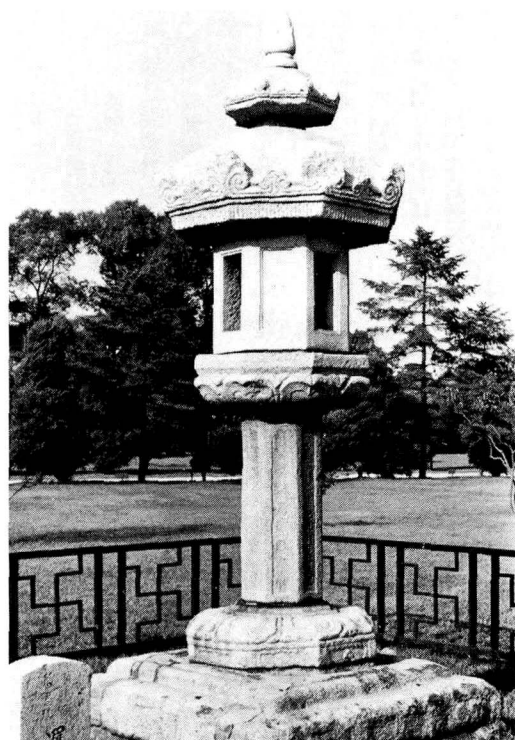


圖14) 羅卅 西門 石燈



圖15) 鳳林寺 眞鏡大師 浮屠



圖16) 寶林寺 東浮屠